



발행인 정우식 / 편집인 김진성 / 발행일 2011년 7월 11일 / 560-837 /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 227-0650)

>>> 더불어 사는 기쁨, 함께 여는 통일의 세상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통일만마당 (3:3) 농구 대회

일시: 2011. 6. 12(화) 0시-18시 장소: 전주공업고등학교

전주공업고등학교

제18호

2011년 7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 주체들의 참여로 만들어 가는 교육 희망



이 미 영
(이사장, 전주공고)

안녕하십니까? 벌써 1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군요.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린 회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이 조금은 나아졌으리라 자부해봅니다.

2011년, 전북 교육 현장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교육 현장의 변화에 주목하고, 교육 희망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교육 주체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교육 주체들의 참여 활동을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소식은, 지난 5월,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와 결집된 힘을 느끼게 해준 혁신학교 학부모 발대식 모습입니다. 발대식에는 도내 각 지역에서 달려온 200여명의 학부모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더군요. 대회의 열기 속에서, 학부모 대중의 자발성과 참여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부모, 교사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네트워크화,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감동적 장면은 청소년들의 역동적인 힘을 보여준 통일한마당 행사였습니다. 본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남북이 통일농구대회를 했던 화합정신을 살려 고교 통일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가 신청한 39팀 전원이 참가하였고, 고교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맘껏 하루를 즐긴 도내 청소년들의 축전이었습니다. 멀리 무주, 순창에서, 군산에서 아이들과 함께 참가한 농구동아리 지도교사들의 열띤 응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소년 스포츠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준 행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에 있었던 교육시민단체의 출범식입니다. 지역주민이, 시민이 교육 단체의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역 교육자치가 성공하려면 도민이, 주민이 교육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시민단체 출범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민은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전북교육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계에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지역 교육력이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가오는 방학에도 본원은 어린이, 청소년 독서캠프, 회원 연수, 단체간의 정보교류 활동 등 바쁜 날 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변함없이 본원을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1. 7월

심는순서

- | | | | |
|----|--|----|---|
| 02 | 인사말 / 이미영 | 14 | 신은철 선생님의 영화읽기 “영혼의 계단을 올라, 집으로” |
| 03 | 희망2011 제11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통일길거리 농구대회도 성황리에 마쳐 | 17 | 연재 - 최순삼 선생님의 인권교육 이야기
- 인권교육을 위한 도교육청의 역할 |
| 04 | 책만세와 함께 고전의 향기 속에,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 22 | 연재 - 박현숙 선생님의 학급경영 이야기 |
| 05 | 제3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체육한마당 | 18 | 조경희 선생님의 들꽃이야기
- 잔잔한 수면 위, 별처럼 피어나는 노랑어리연꽃 |
| 07 | 기획/특집 - 제11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이모저모 | 19 | 황경택 작가의 즐거운 생태놀이 - 여름놀이: “한 개 열렸습니다.” |
| 11 | 통일의 꽃(전주인후초등4, 이성훈)
통일그리기대회 최우수상(전주효림초5, 설가현)
할머니 집 앞 꽃밭에서(전주술내고, 1 백승현) | 20 | 연재 - 즐거운 교실 만들기 - “나비를 잡는 아버지”를 배우며 |
| 12 | 2011년 남북평화 4행시 | 22 | 신입회원 소개 / 회원동정 / 교육단체 소식 |
| 13 | ‘교육정책 세미나’ 진지한 토론 | 23 | 『북녘 어린이 공우유 사업』 후원자 모집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회원/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

희망 2011, 제 11 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6월 11 일,12 일 이틀간 열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교육청, 국립전주박물관, 전북겨레하나, 국민생활체육전북농구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후원한 '제 11 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지난 6월 11 일과 12 일 양일간 국립전주박물관과 전주 공고에서 뜨겁게 펼쳐졌다.

6월 11일(토)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오전 9시-12시 30분까지 열린 통일한마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의 의미를 담은 기념식을 시작으로 이 행사의 살아 숨쉬는 역사가 된 통일노가바 대회를 비롯하여 통일글쓰기·그리기 대회에 총 1000여명의 학생과 200여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박물관으로 소풍을 나온 듯 편안하게 대회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은 대회 틈틈이 '남북평화'를 주제로 한 4행시 짓기와 남북염원 퍼즐맞추기 등을 하며 통일에 대한 꿈과 의지를 다지기도 하였다.

박물관 강당에서 펼쳐진 통일노가바 대회는 그 어느 해보다 화끈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으며 4중창을 선보인 전주공고(지도교사 손영호)가 '나는 통일을 이루겠어요'란 곡으로 도지사상인 대상을 차지했다.



통일길거리 농구대회도 성황리에 마쳐

올해 통일한마당은 청소년 통일 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쓴 통일 길거리(3:3)농구대회가 단연 화제였다.

6월 12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공업고등학교 체육관과 야외 농구장에서 하루 종일 펼쳐진 통일 농구대회는 총 39개 팀 20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해 첫 대회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그 동안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행사에 대학 입시 때문에 참여도가 낮았던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동아리활동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특기를 계발함은 물론 민족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며 통일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주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

국민생활체육전북농구연합회가 농구대회 진행을 맡아 매끄럽게 경기를 운영했으며 전주공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속에 뜨거운 피약별 아래서도 즐겁고 신나게 운동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었다.

첫 대회 영예의 우승은 전주영생고등학교 통일 팀 선수들에게 돌아갔다.



책만세와 함께 고전의 향기 속에, 나를 찾아서 떠나는 독/서/여/행



책만세(책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세상)는 2011년도 독서교실의 방향을 '고전'으로 삼고 '고전의 향기 속에, 나를 찾아서' 길고 깊은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다.

3월 오리엔테이션으로 10여명의 지도교사와 36명의 학생들의 얼굴을 익힌 후, 4월 **신은철 선생님(삼례중)의 '바리데기 신화'**로부터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되었다. 신화는 기본적으로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정보(information)가 아니라 변화(transformation)를 주기 위한 이야기라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가 신화를 읽는 의미는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성찰하는 과정일 것이다. 그 과정이 <야야 내 딸이야 버린 딸 바리데기야>(신동훈 풀어썸, 나라말 출판사) 책을 읽고 내면화 하는 수업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학생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바리데기, 오늘이 등의 신화 속 인물들을 통해 '분리(=출발, 집을 떠남)-입문(=하강, 시련과 고난, 죽음=하계 여행, 상승, 승천)-귀환(=집으로 돌아옴)'이라는 영웅적인 삶의 구조를 익히면서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깨달음의 과정을 공감했다. 그 공감은 개성 넘치고 창의적인 책갈피 꾸미기로 마무리되었다. '신화는 당신이 걸려 넘어지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음을 알려준다'는 캠벨의 말이 메아리처럼 아이들 가슴에 울려 퍼진 첫 항해였다.

5월 여행은 **안수미 선생님(임실 관촌중)과 함께 한 '인형의 집' (입센)**이었다. 19세기 말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던 결혼과 남녀의 역할, 종교 등에 대해 의문을 던진 문제작,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아를 발견하려는 여주인공 '노라'의 가솔로 화제를 모았던 최초의 페미니즘 희곡인 이 작품을 통해 현재의 나와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노라의 가솔에 대한 찬반 토론과 노라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초대해 가상 대화를 나누는 테이블 대화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창의적인 접근은 실로 놀라웠다. 넬슨 만델라와 노라가 시공을 초월해 가진 만남에서 억압과 차별을 딛고 평등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위해 노력하자는 대화는 책을 통한 사고의 확장을 보여준 멋진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6월은 우리 역사의 질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달, 고전을 떠나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여행을 기획했다. **'떠나보낼 수 없는 세월' (최숙렬)과 '장마' (윤흥길)**와 함께 하는 작은 독서 올림픽! 모둠별로 힘과 지혜를 모아 체력도 기르고 독서 실력도 점검하는 자리다. 독서 볼링 대회, 퀴즈 단체 줄넘기 대회, 5인 6각 달리기와 요쿠르트 빨리 먹기 대회, 그리고 퍼즐로 즐기는 책과의 만남 등 모둠원이 하나 되어 벌이는 짜릿한 승부 열전이 전개되었다. 외세의 침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이산과 분단의 비극이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는 우리 역사를 몸으로 부대끼며 나누는 사이 책과 사회와 우리의 간격이 한 뼘은 줄어든 듯 뿌듯함이 일었다. 이 뿌듯함을 그대로 이어, 자신의 역사의식을 다지는 청소년 통일한마당에 참여하여 통일글쓰기 대회를 실시하였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짬짬이 시간을 내어 같은 책을 읽고 책 내용을 심화시키는 토론을 거쳐,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수업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에 책만세의 힘이 있다. 열린 수업 형태의 진행으로 자신의 교수 방법을 점검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익히면서 교사로서의 끊임없는 진화를 모색하는 책만세! 2011년의 길고 깊은 항해가 깨달음의 귀환으로 종결하기를 기대하며 여름방학 독서캠프와 2학기의 독서 활동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3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 / 체육한마당

우리 문화원은 지난 5월 7일(토), 전주서신초등학교 강당에서 제3회 이사장배 배드민턴대회 / 체육한마당을 열었다. 문화원 회원들이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평소 뽐기 힘들었던 회원들이 방문하는 등 100여명이 참여해 배드민턴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임동연 연대사업국장은 “승패를 떠나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운동을 통해 모르던 회원을 알아가고 지인들에게는 문화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대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혼합복식	우 승 : 임대승, 양미라	준우승 : 신성하, 김태정
■ 여자복식	우 승 : 최윤숙, 정경순	준우승 : 유성례, 양미영
■ 남자복식	우 승 : 박용선, 석덕용	준우승 : 권오신, 고재근
■ 완전초보	우 승 : 최성자, 황문규	준우승 : 경종호, 류정아



제11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이모저모

하나, 사진으로 보는 통일 한마당



잘막 인터뷰!



“전주공고 합창부원은 13명으로 연습은 2주정도 했습니다. 통일에 대해 무관심했던 저와 친구, 후배들이 인터넷으로 북한에 대해 조사도 하고 통일에 대해 알아 보면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습니다. 대회 전에는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도 바뀌었구요. 또 통일 노가바 대회 날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나게 된 것도 반가웠고 협동심을 발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전주공고 합창부가 대상을 수상해서 정말 좋았는데 학교에 걸린 플랑에 개인 이름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 통일노가바 대상 전주공고 장수민(자동차학과 2학년) -



두울, 통일 길거리 농구대회, 통일운동의 새 역사를 쓰다



첫 시도.

과연 몇 팀이 대회에 참가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접수를 마감한 결과 24개교 39개 팀(팀당 5명)이 접수하여, 농구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에 주최 측도 깜짝 놀랐다. 농구연합회관계자도 “첫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 보니 우리 청소년들에게 앞으로도 이와 같은 대회를 많이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6월 12일(일) 전주공고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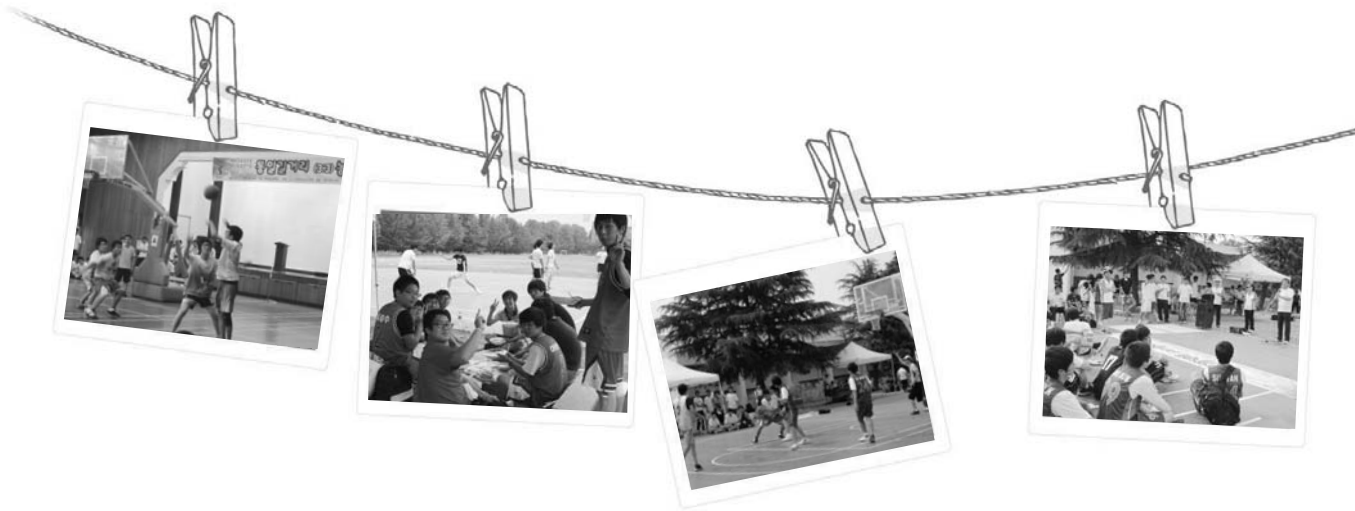
간단한 의식 행사를 마친 뒤, 9시 정각 첫 게임을 시작으로 예선 13조 조별 리그전을 거쳐 각 조 1위가 결선리그에 진출했다. 결선리그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오후 4시 30분경, 영생고 통일 팀과 전북기계공고 통일 팀의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모든 게임이 마무리 되었으며 영예의 우승(상패 및 문화상품권 20만원)은 영생고 통일 팀이, 준우승(상패 및 문화상품권 15만원)엔 전북기계공고 통일 팀이, 3위(문화상품권 각각 10만원)엔 전라고 통일 팀과 우석고 평화 팀이 공동 수상하였고, 8강(각각 농구공 1개)엔 순창제일고 통일 팀, 전주공고 자이언트 팀, 삼례공고 팀, 신흥고 통일 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국민생활체육전북농구연합회 전문 심판진과 계시원, 기록원이 원만하게 게임을 이끌었고, 문화원 이사장과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원만한 대회 진행을 위해 땀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에서 청소년들을 향한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대회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 전주공고 선생님들(특히 체육부 선생님)과 봉사활동 도우미 학생들도 대회의 숨은 공로자라며 대회 관계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플러스 α 통일길거리 농구대회 뒷이야기

김 현 봉 (부원장)



- ❖ 대회 당일, 가장 멀리에서 참가한 무풍고 팀이 제일 먼저 대회장에 도착하였는가 하면, 행사 30분 전에 모든 팀이 도착하는 열성을 보여, 주최 측을 흐뭇하게 하였답니다.
- ❖ 200여명에 달하는 선수들 대부분이 자장면 배달로 점심 식사를 해결하여 전주공고 주변 중국집이 호황을 누렸다는 후문입니다.
- ❖ 화목한 팀으로는 단연 순창 동계고 팀이었는데 교사, 학생들의 응원 팀이 달려왔는가 하면, 점심도 등나무 아래서 오붓하게 피자, 치킨 등으로 만찬을 즐겨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 ❖ 대회 기념품으로 참가 선수들에게는 멋진 티셔츠를 선물했으나 정작 지도교사들에게 증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는데...주최 측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 ❖ 이번 대회에는 상당수의 참가선수들이 고3 학생들이었는데 모처럼 입시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뽐 하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 33도를 넘는 더위 속에, 준비한 생수 400명이 동나자 주최 측은 생수 200명을 긴급 공수해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전주공고 이병노 선생님의 생수 후원은 가뭄에 단비 같았습니다.
- ❖ 이번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행사를 총괄 기획한 문화원의 통일교육실장 류정아 선생님(여울초)은 “1개교 2팀인 경우 청팀, 백팀이 아닌 평화 팀과 통일 팀으로 명칭을 주니 하루 종일 평화와 통일이란 낱말을 수없이 들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평화·통일 교육이 이루어진 듯했다.”며 연신 싱글벙글한 모습이었습니다.
- ❖ 이번 대회에서 단연 눈길을 끈 인물로는 전주공고 자원봉사 팀 학생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행사 마감 시간 이후 6시까지 묵묵히 봉사활동을 전개한 봉사자들을 보며 대회에 참가한 한 교사는 ‘자원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며 감동받았다는 후문입니다.
- ❖ 본원 회원이자 국민생활체육전북농구연합회 사무처장이기도 한 이주환 선생님이 경기 일정 내내 진행을 도와서 길거리농구대회를 무난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주환 사무처장님! 내년에도 도와주실 거죠?”

세엣, 진정한 감동을 선사한 자원봉사 학생들의 활약

이번 통일한마당에는 전주여고(지도교사 손춘임)와 전주공고(지도 송인영 사회복지사) 학생 4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맹활약했다.
그 중 전주공고 고수호 학생(전기과 3학년)과의 전화 데이트를 공개한다.^^



♡ 참여하게 된 계기는?

- 전주공고 봉사동아리 '또래도우미' 소속이며, 월 1회 정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오다 이번 통일한마당에 이를 동안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 통일한마당에 참여한 소감은?

-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좋은 활동을 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노가바, 글쓰기, 그리기 대회 또 통일 길거리 농구대회를 옆에서 지켜보며 통일에 대한 관심도 더 생겼고 그래서인지 봉사에 대한 보람도 컸습니다.

♡ 날씨가 이틀 내내 무척 뜨거웠는데 힘들지는 않았는지

- 또래 친구들과 후배들이 함께해서 힘들지 않았고 봉사하는 동안 서로 부대길 수 있어서 동아리 선후배들과 친밀감도 더 생겼습니다. 또 봉사 시간도 채울 수 있어 좋았고 선생님들께 칭찬도 많이 들어 더욱 즐거웠습니다.

♡ 앞으로의 꿈은?

- Wee class 선생님들처럼 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엄마가 고된 일을 하시느라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엄마를 위해 물리치료가 되고 싶기도 해요.

수고하세, 성실한 봉사에 매료되었습니다.

꿈을 꼭 이뤄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멋진 어른 되세요.~

네엌, 전주영생고 농구 동아리 '골게터' 탐방

이번 통일한마당에서 맹활약한 학생들은 하나같이 학교 동아리에 소속되어 열심히 활동해 오던 학생들이어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주 공고 합창동아리, 봉시동아리 그리고 영생고 농구동아리 '골게터'!

통일 길거리농구대회 첫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전주 영생고 농구동아리 '골게터' 주장인 조정호(2학년) 학생을 만나 보았다.



♥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

- 학교로 온 공문을 보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1,2학년으로 구성된 농구 동아리 회원 중 자체 선발전을 거쳐 2학년 1팀, 1학년 1팀이 나왔어요.

♡ 농구대회에 자주 참여했나?

-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가 좋아 3점 슛 연습도 많이 하고 친구들과 자주 했는데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배들과 한 팀을 이뤄 참여해 보았고, 이번 팀으로는 처음 대회에 참가했는데 생각지 않게 우승까지 하게 되었네요.

♥ 연습은 언제하나?

- 점심시간을 이용해 매일 강당에서 친구들과 연습합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면?

- 준결승전에서 우석고 평화 팀과 붙었을 땀니다. 우리가 2점차로 지고 있었는데, 종료 2초를 남겨두고 내가 던진 3점 슛이 성공해 우리 팀이 역전승을 거둔 순간이 제일 짜릿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 선수들 키가 그다지 크지 않던데.

- 맞아요. 농구하기엔 그다지 크지 않은 보통의 키죠. 그래서 더 많이 움직여 수비하고 슛을 정확히 하기 위해 슛 연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 통일길거리 농구대회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 본다면?

- 그 날 날씨가 너무 무더웠어요. 강당에서 계속 하기에는 코트 수가 적고 야외 농구장은 너무 더웠어요. 대회장 주변에 편의 시설이나 식당도 별로 없어 불편했구요.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한 것이 즐거웠고 선생님들이 직접 마련해 준 대회여서 더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체육교사인 조정호군.

체육교사의 꿈을 꼭 이루어서 나중에 우리 문화원 회원으로 함께해요..



통일글쓰기 - 초등부문
전주교대총장상

통일의 꽃

이 성 훈 (전주인후초등 4)

날개가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어깨가 들쭉들쭉

가방에 무엇을 담아서
북한 친구들에게 가져갈까?

마음이 두근두근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축구공을 가져갈까?
피자를 가져갈까?

배고픈 북한 친구들은
피자가 좋겠어.

피자를 나누며
사랑도 우정도 함께 나누지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면
내 마음에 꽃이 필거야

통일의 꽃은
친구들 가슴에도
활짝 피어
꽃향기 가득 하겠네.

통일글쓰기 - 중·고 부문
전주교대총장상

할머니 집 앞 꽃밭에서

백 승 현 (전주솔내고 1)

할머니 집 앞에
활짝 이는 꽃밭.
할머니가 열심히 가꾸신 꽃밭.

그 흐드러진 것들을
바라보는데
철없는 동생이
밟고 가버려
반으로 나눠져 버렸다.

흔썸을 내주려다
그냥 그곳으로 가
꺾인 꽃을 정리하는데
오물오물 어린 것도 미안한지
같이 손을 댄다.

애들아, 애들아,
우리 다시 꽃을 심어보자.
웃으며 다독여 주시는
할머니 덕에
나도 동생도
더 빨리, 더 열심히 꽃을 심고 싶어지는
꽃밭.



통일그리기대회
최우수상 수상작

설 가 현 (전주효림초 5)

2011년 남북평화 4행시

남에서 북으로 구름이 흘러감
북에서 남으로 구름이 흘러감
평화로운 세상이 하늘에 펼쳐져 있어
화사한 이소로 그 하늘을 우리같이 보아오

-전주서목초 2학년 이원민-

남과 북이 하나 되면
북과 장구가 알리는
평화의 풍물소리가
화창한 날씨와 어우러져요

-전주서신초 6학년 노소영-

남한의 친구들
북한의 친구들
평평한 얼음판위에서
화기하게 설매 타자

-전주우리초 2학년 소예빈-

남이 되어 싸운지 50년
북한사람 미워할만 하지만
평화통일 이루고 보니
화면 내모습 부끄러워요

-전주여울초 4학년 김예겸-

남한으로 오시오,
북한 주민들이여!
평화 통일이 되면 모든 이의 꿈을 찾아줄
화통한 일통국가 대한민국으로

-전주이화초 4학년 장지우-

남쪽의 맑은 하늘과
북쪽의 맑은 하늘은
평화롭게 매일 공존 하는데
화합하는 통일의 모습을 볼수 있는 날은
언제 올까요?

-전주우리초 6학년 감지아-

남쪽 땅과
북쪽 땅은 본래 하나였지
평지같이 하나 되어
화평한 땅 이뤄가자

-전주여울초 6학년 하가현-

남한이 이겨도
북한이 이겨도
평화는 오지 않는다네.
화해를 하고 통일을 해야지

-전주서문초 5학년 최유림-

남이 북한에게 편지를 보내서
북이 답장을 보내 통일이 시작되고
평화가 시작되고
화창한 날이 온다,

-전주만수초 4학년 이현빈-

남과 북이 하나 되면
북이 울릴 거예요
평화를 알리는 북이요
화해를 알리는 북이요

-전주여울초 5학년 임운강-

남한도 세지고
북한도 세지고
평화가 되면 좋은 점이 많다
화산처럼 뜨거운 통일을
하고 싶은 마음

-전주신성초 4학년 고정우-

‘교육정책 세미나’ 진지한 토론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과제’ 주제로



해마다 5월에 교육 현안을 선정하여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해온 우리 문화원의 ‘교육정책 세미나’가 이번에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주제를 다뤘다. 문화원 부설 청소년교육연구소가 주관하여, 5월 24일(수) 오후 6시 문화원 교육연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학생과 교사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청소년교육연구소 양희진 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발제에서 이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서 조례는 단순히 학교의 생활규정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교 문화 전체는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전북인권교육센터 전준형 소장은 전북 학생인권조례의 출발이 그동안 억눌렸던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춘임 문화원 교육연수국장은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학생인권 실태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마지막 발제자 최윤호 남원고 3학년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인권이 존중되는 경험을 제공함과 아울러 교사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만들자고 주장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참석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청소년교육연구소 최순삼 소장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 문제를 입시와 학생통제의 편의성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안 된다. 현 시기 ‘학생인권’은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다소 불편한 진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불편해도 진실은 반드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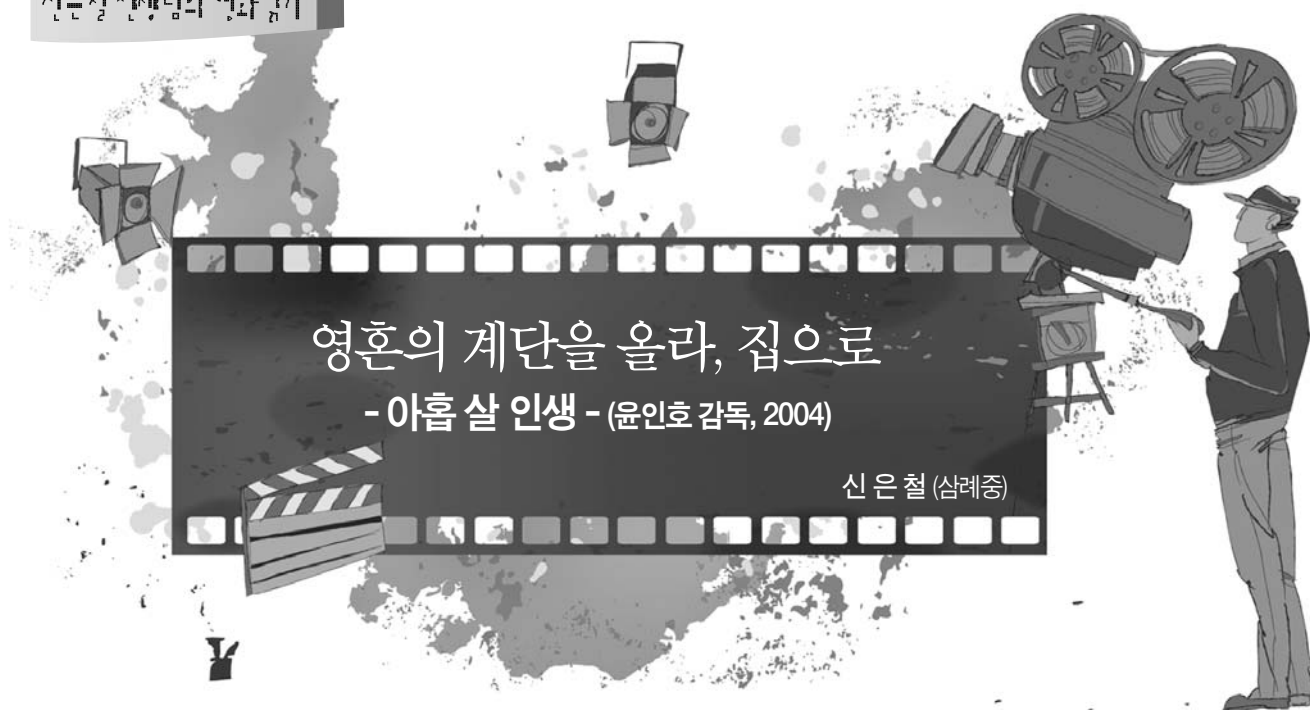
전북 학생인권 실태조사 분석 결과 [자세한 내용은 교육정책 세미나 자료집(2011. 5. 24) 참조]

전북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문화원 부설 청소년교육연구소 주관으로 전북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68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인권교육, 인권조례 제정, 체벌,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수준별 이동수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3%(501명)가 ‘아니다.’고 응답해 인권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느낀다.’(75%)는 응답이, ‘잘 모르겠다.’(21%)거나 ‘느끼지 않는다.’(4%)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필요하다.’(44%)와 ‘매우 필요하다.’(36%)가 80%를 차지했고, 인권조례에 꼭 포함되어야 할 규정(택3)으로는 ‘학교생활규정(옷차림, 두발 등)에 학생 의사 반영’(81.5%)이 가장 많았다. 반면, 체벌에 관한 엄격한 금지(36%), 체벌 전면 금지는 15.6%에 그쳤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3%),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77%)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답이 80%에 이르렀으나, ‘체벌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21%), ‘그렇지 않다.’(25%)가 46%, ‘보통이다.’가 35%인 반면, ‘그렇다.’(16%), ‘매우 그렇다.’(3%)는 19%에 지나지 않아 체벌이 행동 변화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수업은 응답자의 91%가 참여하고 있고, 참여 이유로는 ‘학교에서 강제로 시켜서’(54%), ‘학교 시험에 출제되니까’(22%), ‘입시에 필요해서’(16%) 등을 꼽았다. 야간자율학습은 88%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참여 결정은 학교나 담임교사가 53%, 학부모가 7%로, 타인의 결정이 ‘본인의 결정’(37%)보다 훨씬 많았다. 국?영?수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는 ‘불만이다.’(22%), ‘매우 불만이다.’(13%)가 ‘매우 만족한다.’(4%), ‘만족한다.’(17%)보다 많았다. 수준별 수업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상반과 하반의 격차가 더 심해진다.’(23%), ‘공부하기가 더 싫어진다.’(21%), ‘중?하반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20%) 등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혹시 아홉 살 시절이 기억나세요? 유년의 코흘리개 철부지에서 순수의 파릇함과 설레는 연분홍이 뒤섞인 봄바람 같은 소년의 계절로 막 넘어가던 그 무렵 말이예요.

웬 똥똥지같은 질문이냐고요? 엇그제 윤인호감독의 영화 '아홉 살 인생'을 일곱 번째 보았거든요. 2004년 여름에 장수지역 청소년 독서캠프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본 이후로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틈이 날 때면 보고 있지요. 물리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보고 또 봐도 재밌네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러셨지요. 저는 “영화에서 무엇을 읽느냐?” 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영화를 보느냐?” 고요.

▷ 영웅 신화의 구조에 따라 읽기

저는 요즘 영화를 볼 때 영화에서 영웅 신화의 구조를 읽는답니다. 물론 저도 한때는 영웅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들었던 적도 있지요. 영웅하면 웬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세계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신화를 읽고 공부하면서 곧 우리처럼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인물들이 변해 영웅이 됨을 깨닫게 되었지요.

“〈전략〉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웅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질투, 시기심, 남과 다투려는 마음이라는 ‘괴물’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기적인 욕망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노력해서 목표를 이룬 사람도 영웅이라는 말이다. 어쩌면 진정한 영웅은 이들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영웅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든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영웅을 정의하면,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 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릴 때 우리는 위인들의 삶을 그린 전기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운다. 바로 그렇게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영웅이다.

〈우리 곁에서 만나는 동서양 신화, 이경덕, 사계절, 14쪽〉

결국 영웅은 특별한 자가 아니라 그가 누구일지라도 어떤 측면에서 작정하고 바라본다면, 또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 낸 자라면 모두 영웅일 수 있는 거지요.

영웅 이야기에는 대체로 일정한 유형이 있지요.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요, 첫 단계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익숙했던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야합니다. 즉 영웅이 되는 첫째 조건으로 영웅의 삶이 보통세상으로부터 ‘분리(출발)’가 되어야 하지요. 싯다르타는 궁궐을 나오고, 바리데기는 집을 나서 서천서역을 향해 떠나며, 테세우스는 자청해서 미노타우로스의 공물이 되지요. 그들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 다양한 조력자들을 만나 수수께끼의 열쇠를 얻고요.

둘째 단계는 특별한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문(하강, 상승)의 단계이지요. 이 단계에서 영웅은 죽음을, 죽음에 버금가는 시련을 겪지요. 테세우스는 미궁 속으로 들어가고, 웅녀는 동굴 속에서 마늘과 쭈꾸미 먹고, 바리데기는 저승의 유수강을 건너야 하며, 헤라클레스는 에우리스테우스에게 가서 12과업을 마쳐야 하지요.

셋째 단계는 귀환입니다. 영웅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묘약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거나 신성혼도 하는 단계입니다. 바리공주는 서천서역에서 무장승과 결혼하고 마침내 부모님을 살릴 약수를 구해오고요, 애벌레는 고치를 벗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로 탈바꿈하지요. 이아손은 황금양털을 가져오고요, 갈매기 조나단은 삶의 유한함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비행술을 익혀 무리에게 돌아오지요. 영웅들은 죽음을 이기고 돌아와 새롭게 부활하기도하고 가져온 묘약으로 인해 그가 속한 동아리와 세상은 생명의 힘을 얻게 되지요.

물론 모든 영웅 이야기가 한결 같지 않고 세부적 신화소들은 차이도 나지만 분리와 입문, 그리고 귀환이라는 이야기의 큰 틀은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에 공통적으로 스며있지요.



그럼 영화 '아홉살 인생'을 영웅 신화의 문법에 따라 정리해 읽어 보지요,

Ⅰ. 분리 (보통 세상→모험에의 소명→소명의 거부→조언자와의 만남): 여민,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이 영화의 시작을 주목해 보면 여민이가 학교에 가기 위해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개학을 한 여민이가 계단 밑에서 기종이와 금복이를 만나 학교에 갑니다. 영웅이 집을 떠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주목할 이미지는 계단과 사다리입니다. 계단과 사다리는 상승과 하강, 그리고 축과 중심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감독은 세상의 중심과 축, 주인공의 변화와 성장의 상징으로 계단과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민이가 우림이를 만나기 전의 세상이 보통 세상이고요, 가난과 엄마의 장애,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혼돈의 세계들이 여민이가 가파르게 올라야할 보통 세상이지요.

Ⅱ. 입문 (관문 통과→시험, 협력자, 적과의 만남→하강, 시련→보상): 여민, 우림과 세상을 만나다

여민이의 보통 세상에 우림이라는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우림이로 인해 전과는 다른 특별한 세상으로 초대받아 들어가는 거지요, 관문의 통과입니다. 자기와는 다른 별천지의 세상에서 온 듯한 우림이에게 여민이는 왠지 모를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림이는 변덕이 심하고 반 친구들에게 아버지에게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중잡을 수 없는 아이지요.



여민이는 우림이 때문에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들과의 사이에 금이 갈 뻔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골방철학자 아저씨, 피아노 누나 등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우림이와의 우정(사랑)이라는 보상을 얻게 됩니다.

III. 귀환(귀환→부활→묘약과의 귀환): 여민, 계단을 올라 집으로 가다

여민이는 물에 빠진 우림이를 구하기도 하고 우림이에게 매사에 진심을 보임으로 우림이의 마음을 얻지요. 아버지를 잃은 고통과 새 아버지와의 갈등의 비밀을 안고 있던 우림이도 시골에서의 생활과 여민이와의 만남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다잡고 다시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영웅의 귀환이지요. 여민이는 떠나는 우림이에게서 실명한 엄마를 위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안경과 사랑의 고백을 선물로 받고 다시 계단을 올라 집으로 가지요. 영웅이 묘약과 함께 집으로, 보통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주의 깊게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구조가 시작 부분에서 집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 하강과 영화의 끝 부분에서 계단을 올라 집으로 돌아가는 상승의 틀로 짜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독은 영웅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 주인공의 변화와 깨달음을 잘 전달하고 있지요.

물론 여민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하고 신비한 그런 영웅은 아니지요. 알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계에서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것은 더더욱 아니니까요. 그러나 삶과 시간이 주는 상처를 극복하고 그 아픔을 통해 영혼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도 훌륭한 영웅이 아닐까요?

영화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지요. 어떤 이는 영화에서 음악을 읽고, 어떤 이는 이미지와 상징을 읽어내고, 어떤 이는 인물의 심리를 읽는데 주목하지요. 하지만 영화 보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영화 읽는 법을 익혀 연습하고 노력하여 영화를 이루는 여러 구성 요소들(인물과 사건, 이야기의 구조, 영상, 소리, 편집 등)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서, 영화를 읽고 보는 행위를 진정으로 즐기며, 이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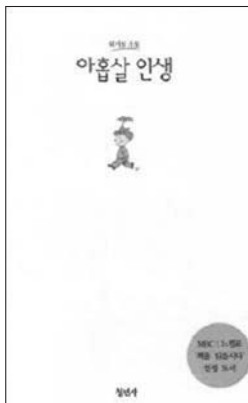
선생님, 영화에도, 신화에도 문외한인 제가 아는 척 하자니 오늘도 횡설수설 말이 어지럽네요. 영화를 사랑하는 이의 애정 어린 넋두리로 생각하고 어여삐 들어주세요.

참, 영웅 신화의 이야기 구조를 살필 수 있는 영화로는 ‘열세 살, 수아(김희정감독, 2007)’,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에릭 브레빅감독, 2008)’를 추천하니 참고하세요.

지난 학기에도 변함없이 보여주신 선생님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를 보내며,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평화로운 방학이 되길 빌어요.



| 함께 보면 좋아요 |



아홉살 인생
위기철 지음, 청년사

지은이가 스물아홉 해 살아오면서 느끼고 배웠던 인생이야기를 아홉 살짜리 주인공을 통해 정리한 책. 가파른 세상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유머와 재치로 삶의 의미를 전한다.

진실한 거짓말쟁이 신기종, 골방에 갇혀 천하를 꿈꾸던 골방철학자, 사랑스런 허영쟁이 장우림, 아버지를 죽이고 싶던 검은 제비, 노란 네모 주인공 등이 등장해 유쾌한 웃음과 짙한 감동을 선사한다.

〈출처: 알라딘〉

인권교육을 위한 도교육청의 역할



최 순 삼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장, 복흥중)

유엔 「인권, 새로운 약속」은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인권의 무지상태를 강요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머릿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 사람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학습이 읽기, 쓰기, 셈하기, 그리고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2011년 하반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혁신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에 달려 있다.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길러주는데 인권교육은 필수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2010년 11월 전라북도 인성·인권신장T/F팀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이 36%에 불과하며, 인권 침해나 차별대우를 받아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하다.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32%이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인권교육에 관련한 사업과 예산은 매우 미진하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홍보지를 발행 배포해야 한다.

“우리들의 인권소식”이라는 인권소식지를 두 달에 1회 발행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학생인권 조례와 인권의 역사, 기본지식, 우리지역 인권역사현장과 인물 소개, 개인, 학교, 지역사회 인권디딤돌 소식, 인권교육프로그램 소개 등이다. 배포 대상은 초·중·고 학급당 3매, 교직원, 학교운영위원으로 한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보고 인권의식을 길러갈 수 있는 인권교육홍보지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인권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권교육 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해야 한다.

도교육청 인성·인권신장T/F팀의 인권교육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들은 75%가 인권교육과 인권교육전문기관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 스스로 양성과정과 교사생활 이후 연수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원칙은 인권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법,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 감수성 기르기 프로그램,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 부적응학생 문제 등을 포함한다. 직무연수(60시간 이상)로 개설하고 초, 중등 각 1개 반 80명으로 한다. 인권교육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은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 인권교육 강사요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그리고 교사들의 모든 연수과정에 기본소양교육으로 인권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셋째 단위학교 인권교육체험학습의 날을 운영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학습과 연계하여 자율 활동의 일환으로 매달 1회씩 자치활동과 인권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험학습 내용은 인권관련 영화보기, 우리지역 인권역사현장, 인물탐방(동학유적지,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기념관 등), UCC 제작, 인권만화그리기 등이다. 도교육청은 「2012 전라북도 인성·인권교육계획」에 인권체험학습의 날 운영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을 세워서 단위학교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런 체험학습 결과는 창의적 체험학습 결과와 함께 학교축제와 연계하고 학생 중심 졸업식 문화 정착에도 연결되어야 한다.

자기의 권리를 알고 이를 실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권은 시작된다.

잔잔한 수면 위, 별처럼 피어나는 노랑어리연꽃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장마로 우리의 일상이 지리해 질 때면 잔잔한 수면위에 별처럼 피어나는 노랑어리연꽃이 보고 싶어진다. 요즘에는 크고도 다양한 모습과 화려한 색감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개량종 수련도 아주 많지만 노랑어리연꽃은 작고 앙증맞으면서도 기품이 느껴져 언제보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우리 꽃이다. 물위에 떠있는 모습이 마치 노랑개나리를 연상하게 하는 노랑어리연꽃은 번식력도 좋아 군락으로도 피어나는데 초여름에 강렬한 노란빛으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다.

노랑어리연꽃(*Nymphaoides peltata*)은 우리나라 여러 곳의 늪, 연못, 도랑에 피어나는 여러해살이 수초인데 주로 중부 이남에서 볼 수 있다. 노랑어리연꽃의 뿌리 줄기는 물밑의 흙 속에서 옆으로 뻗으며 마주난 길쭉드랑이에서 2-3개의 꽃대가 나와 꽃이 핀다. 잎은 마주나며 긴 잎자루가 있고 수면에 뜨며 넓고 둥근 모양으로 가장자리에는 물결 모양의 뾰족한 톱니가 있다. 처음에 나는 이 꽃을 수련과 식물로 잘못 알았다. 노랑어리연꽃은 용담목 용담과이다. 그리고 보니 꽃이 용담꽃의 모양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오이꽃을 닮기도 했다. 그런데 이 꽃이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어쩌든 연꽃이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피어나서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노랑어리연꽃이 있어 여름도 은근히 즐길 만 하다.

노랑어리연꽃과 비슷한 수생식물에는 어리연꽃도 있다. 두 꽃의 특성이 비슷하지만 꽃의 색깔이나 모양이 조금 다르다. 어리연꽃은 하얀색으로 피어나며 수술은 5개이고 암술은 하나이다. 5개로 깊게 갈라진 하얀색 꽃잎 한가운데가 노란빛으로 동그스름하게 피어나 더

욱 어여쁘다. 어리연이 물위에 군락으로 하얗게 피어난 모습을 바라보면 새하얀 눈꽃이 일시에 하늘에서 피어나 수면위로 떨어진 듯 하다. 또 우리 꽃 중에 아름다운 이름을 지닌 꽃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어리연, 노랑어리연꽃은 그 얼마나 이름이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사실 이 두 꽃의 이름에 들어간 ‘어리’ 라는 낱말은 비슷하다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연꽃과 비슷하지만 결코 연꽃과는 또 다른..... 그리고 어리연과 노랑어리연꽃은 수련처럼. 이른 아침에 피어나 오후면 꽃잎을 단아버려 부지런한 사람만이 꽃이 핀 것을 볼 수가 있다. 몇 해 전에 어리연꽃을 담으러 떠난 야생화 출사에서 곤란했던 기억도 새삼 생각이 난다. 그 당시 물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피어난 노랑어리연꽃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태웠었다. 그럴 때에는 망원렌즈가 필수인데 망원렌즈가 없어서 안타까웠던 그 순간을 떠올리니 다시금 그때가 그리워진다.

요즘은 우리 들꽃, 우리나라와 더불어 수생식물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대부분의 식물원에는 수생식물원이 따로 있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관상용으로 작은 연못이나 용기를 이용하여 수생식물을 많이 기르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보기도 좋고 수생식물이 물을 정화해주고 수생곤충의 서식처를 보존해 주는 등 생태적 측면에서도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인 것 같다

무더운 여름. 한줄기 소나기가 시원스레 지나간 바로 그때. 노랑어리연꽃이 활짝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연못가에 서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니 이제는 더위도 한결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여름놀이: “한 개 열렸습니다.”

여름은 열매의 계절

여름이란 말은 어디서 온 걸까요?

물이 얼은 것이 ‘얼음’ 이듯이 식물에 열매가 열리는 것을 ‘열음’ 이라고 했지요.

‘열음’ 이 ‘여름’ 이 되고 지금처럼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즉, 식물의 열매에서 여름이란 말이 온 것이지요. 그만큼 여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것은 가을이지만

꽃이 제 할 일을 마치고 떨어지면 그 자리에 자그마하게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름엔 그렇게 생긴 열매들이 살찌는 계절입니다.

넓고 큰 잎으로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결국 열매를 키우는 데 사용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는 시원한 나무그늘에서 쉬지만

그럴 때도 나무는 열매를 틈살하게 하기위해 열심히 일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에서는 여름이라는 계절을 식물이 어떻게 보내는지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놀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놀이 어때요?

제목: 한 개 열렸습니다~

목적: 나무가 되어봄으로써 나무의 노고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고,
모둠간의 일체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대상: 8세부터 가능

인원: 5명부터 가능

■ 놀이방법

- 모둠이 나뉘지면 모둠별로 모이게 한다.
- 각 모둠별로 나무이름을 정한다.
- 참가자들에게 원을 그리고 앉게 한다.
- 한사람이 먼저 일어나 “한 개 열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앉는다.
- 그런 다음엔 그 사람 옆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며 “두개 열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앉는다.
- 그런 방법으로 모둠원이 5명이라면 5명 전체가 한꺼번에 모두 일어날 때까지 진행한다.
- 단, 중간에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 어느 모둠이 틀리지 않고 잘 완성하는지 알아보는 놀이이다.

■ 덧붙임!

- 인원에는 크게 상관은 없으나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놀이 효과가 떨어진다. 5-10명이 적당하다.
- 진행 강사는 어느 모둠이 틀렸는지 공정하게 관리해주는 역할만 한다.
- 앉았다 일어났다하는 속도는 느려도 상관없다. 놀이를 잘 하기 위해 아이들은 서로 대화하고 나름의 규칙을 만들기도 한다.
- 속도보다는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더 기대되는 놀이이다.
- 전체 수업 중 초반에 모둠을 나누고 곧바로 진행하면 효과가 있는 놀이이다.
- 나무열매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여 놀이를 마친 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연결 지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비를 잡는 아버지」를 배우며 - 소설의 구성단계에 따라 정지 동작으로 표현하기 -

유인선 (동향중)

S#1 교실

종례하러 교실에 갔는데 석주 바지가 심상치 않다. 분명히 아침에 현빈(?)표 트레이닝복이었는데 그 위에 사각팬티 같은 반바지를 끼입었다.

담임: 석주야, 바지가 왜 그래?

석주: 예? 반바진데요.

담임: 팬티 같은데……. 아까까진 안그랬잖아.

석주: 체육복이예요. 청소시간에 세민이형이 줬어요.

혜성: 에이, 팬티고만.

여학생들:(웃으며)팬티 맞아. 사각팬티야.

석주:(개의치않고)아니야. 반바지거든. 세민이형이 체육복이라고 했어.

상준: (진지하게) 바지에 주머니 있어?

석주: 아니. 없는데.

상준: 그럼 팬티야.

다음날 미애한테 듣기로, 석주는 그 차림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선배들과 축구를 했다고 한다.

S#2 독서실

지난달에 소설, 「나비를 잡는 아버지」를 배웠다. 우리 반은 10명이다. 첫 번째 시간에 두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소설을 읽은 후 소설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누게 했다. 어디까지가 위기인지 몰라서 갈팡질팡한다. 짝궁의 교과서를 넘겨다보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

국어쌤: 짝궁 뒀다 어따 쓸래. 팍팍 봐라. 짝궁들, 시원하게 보여줘.

유진: 소연아, 나랑 다른데.

소연: (자신 있게)이게 맞아.

유진: 그런가? 선생님 어떤 게 맞아요?

국어쌤: 책꽂이에 국어참고서 가져와서 찾아봐.

유진:(참고서 뒤적이더니) 아하, 소연아 이거 봐봐.



이야기가 갈등양상에 따라 5단계로 나뉘지자, 두 번째 시간에는 모둠별로 각 단계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정지동작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다. 소연이네 모둠이 발단, 위기를, 지원이네가 전개, 절정 부분을 맡았고, 결말은 두 모둠이 모두 하기로 했다.

평소 아이돌그룹 ‘비스트’를 열렬히 좋아하는 소연이는 경환이가 노래 부르는 장면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꿔서 표현했다. 긴 머리카락을 흔들며 굴뚝연기를 표현한 지원이는 모둠원들에게 바우와 아버지의 심정을 보충 설명하면서 장면을 만들었다. 각 장면을 사진에 담아놓고 보니 유독 현준이의 표정이 재미있었다.

결말장면 만들 때는 모둠에 조건을 주었다. 소연이네에게는 아버지 역할 한 명에 바우 역할 4명으로 하되, 바우 역할을 맡은 사람은 아버지에게 하고픈 말을 준비할 것. 지원이네는 반대로 아버지역할을 4명이 하되 나비를 잡는 아버지의 심정을 각각 대사로 준비할 것.

블록타임으로 두 시간 동안 이루어진 수업이었다. 소설이 갈등의 변화과정에 따라 전개된다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탓인지 소설을 구성단계에 따라 나누는 것은 어려워했다. 하지만 반면에 인물역할을 맞아 정지동작으로 표현하는 장면은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정지동작 장면을 구성단계별로 촬영해서 함께 보며 수업을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았다. 소설읽기 1시간, 소설의 구성단계별로 나누기 1시간, 정지동작으로 표현하기 2시간으로 시간을 조정하면 아이들이 천천히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목숨이란 뭘까?’라는 물음에 사로잡혀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목숨이라면, 만남은 늘 생명을 나누는 일이다. 경환이는 나비를 잡는다고 남의 참외순을 밟아 못쓰게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지만, 바우 아버지가 나비를 잡는 모습은 심술 난 바우에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해준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나비처럼, 애벌레 시절을 넘고 죽음을 건너와서 모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바우 아버지가 말한다.

“열쇠는 말이야. 다른 생명을 살리는 관계 속에 있어.”



회원동지

▶ 축 전문직 합격

초등: 엄정영(전주삼천초), 이명란(이리동남초)

중등(전문분야): 최순삼(북홍중), **중등(일반분야):** 안정이(동계중)

▶ 축 결혼

정은경(원주중) 선생님께서 지난 5월 품절녀가 되셨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 되세요.

교육단체 소식



▶ '전북교육자치연대' 힘찬 창립발대식

교육 행·재정 감시와 교육 대안 창출, 공익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 등을 표방하며, 지난 2월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활동하고 있는 교육단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227-3893)가 6월 23일(목) 저녁 7시 30분 전주한옥마을에 있는 최명희문학관에서 창립 발대식을 가지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우리 문화원 고문이신 김윤수 선생님과 자문위원 박세훈 교수님이 공동대표로, 김영기 자문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문화원에서 이미영 이사장과 정우식 원장 등이 참석하여 연대의 뜻을 전했다.

▶ 전북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 출범

전북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가 지난 5월 25일(수) 오전 11시 전주덕일초 강당에서, 20개 혁신학교 학부모 등 200여명이 넘는 학부모와 내빈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한 출범식을 거행했다. 출범선언문 낭독과 김승환 교육감 특강, 도교육청 장학관, 장학사와 과의 질의응답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도의회 김성주, 조형철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고, 우리 문화원에서는 이미영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고 격려하며 연대를 다졌다. 윤성이 학부모(봉서중)가 회장을 맡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2011 전북 학교 혁신 워크숍'에서도 우리 회원들 두드러지게 활약

2011 전북 학교 혁신 워크숍이『혁신학교와 학교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6월 24일(금) 오후 6시부터 1박 2일로 모 악유스호텔에서 혁신학교를 꿈꾸는 교원과 전문직 등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열렸다.

학교 혁신과 관련된 5개의 발제와 5개의 과제 발표로 진행됐는데, 첫 번째 발제에서 우리 문화원 사무처장을 역임한 이영환 장학사는 혁신학교 운영 4대 목표와 운영과제를 중심으로 혁신학교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전주서신초에서 혁신학교 운영을 이끌고 있는 홍인재 회원은 '학교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서신초에서 고민하고 진행했던 혁신학교의 성과물들을 발표했고, 최선호 회원은 혁신학교 과제 발표에서 봉서중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문화와 운영 혁신 방안 모색'을 발제했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동안의 진전된 실천 성과들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회원님을 환영합니다.

신입 회원 (가입일 순)

김동현 (전주공고)
정원훈 (전주공고)
장진숙 (김제중정초)
김은아 (김제벽량초)
석상문 (시민회원)
양은희 (군산회현중)
강상호 (전주공고)
정문양 (익산성북초)
김명숙 (전주만수초)
이명란 (이리동남초)
김효리 (장수장계중)
조성훈 (완주고산초)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 후원자 모집

지금 이 기회입니다. 북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 문화원은 매월 1구좌 5,000원씩의 후원금을 모아 평양 양각도 탁아소 등 북녘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보내는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5,000원이면 북녘 어린이 1명에게 매일 1잔의 콩우유가 공급됩니다. 남측에서 기계와 콩우유 재료를 보내면 북측에서 매일 신선한 콩우유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2006년 2월에 시작하여 현재는 매월 약 200구좌(매월 100만원)를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홈페이지(www.blue21.or.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시어 담당자(장재성, rudnf78@hanmail.net, 010-4655-9803)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약정해주신 월 후원금은 약정기일(2일/23일)에 출금되며, 혹 통장 잔고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출금이 안 된 경우 다음 달에 합산하여 출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내역 중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905-0218

〈 ※ 홈페이지(www.blue21.or.kr)에서 보다 간편하게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사는 기쁨, 함께 여는 통일 세상 회원 /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이 름	회 원 (), 후원회원 ()		
생 년 월 일	(남, 여)		
직 업 / 직 장	담당업무(교과)		
직 장 전 화	집 전 화		
손 전 화			
E-mail 주소			
직 장 주 소			
자 택 주 소			

* 관심 분야(2개 √표)

☐ 청소년 정책	☐ 청소년 인권·복지	☐ 청소년 문화·동아리
☐ 독서교육	☐ 초등교육	☐ 통일·역사
☐ 지역교육·교육자치	☐ 환경·생태	☐ 학급운영
☐ 진로·상담	☐ 성교육	☐ 학부모교육
☐ 인터넷·정보	☐ 학교운영위	기타()

2 0 년 월 일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제13회 청소년 독서캠프 안내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발견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현직 선생님들이 모여 청소년독서캠프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여름 고창의 선운산 자락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책 읽기, 작가와의 만남, 또래들과 함께 보는 야외 영화, 자연생태체험, 별밤지기, 독서모듬활동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양한 독서활동을 경험하며 자아정체성을 탐색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 / 청소년 공통 사항

◆출발 일시 및 장소

8월 8일(월) 오전 9:00
전주-전북학생문화회관 공연장 앞
(옛 도교육청 옆)

◆문의: ☎ 063)905-0218, www.blue21.or.kr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기타:

연락사항은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홈페이지(www.blue21.or.kr) 참고

◆일 정: 2011년 8월 8일(월) ~ 8월 11일(목) [3박 4일]

◆장 소: 고창유스호스텔(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334번지) ☎ 561-3333

◆참가대상: 전라북도 중학교 청소년 80명

◆대상자 선정 기준: 1. 교육 소외 계층 40명 우선 선정

2. 일반학생 입금자 순으로 40명(전북은행 543-13-0311020, 학생명으로 입금)

◆참가비: 9만 5천원(저소득층 및 한부모, 다문화, 차상위계층 40명 전액 무료)

◆참가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만 해당)

◆신청 방법: 전자우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jb-blue21@hanmail.net)

전화문의 및 팩스: ☎ 905-0218 팩스 063-227-0650

*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여 신청서를 보냅니다.

※ 기타: 독서캠프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교사, 학부모,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캠프도서와 교통편, 숙식을 제공합니다.

제11회 어린이 독서캠프 안내

여름방학에 캠프와 독서라는 신나고도 유익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독서캠프가 있습니다. 초등책읽기교육연구회 '읽고살고'의 초등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정: 2011년 8월 8일(월) ~ 8월 10일(수) [2박 3일]

◆장 소: 무주자연환경연수원(전북 무주시 안성면 공정리 173-1 ☎전화: 323-0380)

◆참가대상: 초등학생 5~6학년 80명 ◆지 도: 전북지역 초등교사 20여명

◆참 가 비: 일반학생 50명 8만원 / 저소득층 30명 무료 (학교당 2명 이내, 담임교사 추천서 첨부)

◆신청마감: 7월 16일(금)까지 선착순(일반 참가자는 입금 순) 접수

◆입 금: 전북은행 543-13-0311020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학생명으로 입금. 학생명과 입금자가 다를 경우 연락 바람)

◆접 수: 전자우편 jb-blue21@hanmail.net 또는 FAX 063-227-0650 로만 접수.

(참가신청서 및 담임추천서 양식 www.blue21.or.kr 탑재)

* 일반 학생은 참가신청서만 접수.

* 무료 참가자는 담임교사 추천서만 접수(담임 서명 후 반드시 팩스 접수)

◆접 수 후: 모듬담당선생님께서 개별적으로 집으로 전화하여 준비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단 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www.blue21.or.kr

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 063) 227-0650